

문서번호	투자통상과 - 916	기안자	물류통상 담당	투자통상 과장	관광경제 국장	부시장	시 장
보존기간	년						
결재일자	2014. 7. 24		김등호	윤영호	김현식	윤지인	박종표
공개여부	공 개	협 조					

중국 상해·태창시 포트세일 방문 결과보고

□ 방문개요

- 방문목적 : 목포신항 물동량 유치 및 목포~태창간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 협의 등
- 방문기간 : 2014. 7. 16 ~ 7. 19 (3박 4일)
- 방문도시 : 중국 상해시, 태창시
- 방 문 자 : 4명 (목포시 1, 목포신항만 3)

□ 주요활동 및 성과

- 상해선릉버스 방문 시장님 친서 전달 및 공장견학, 현안사항 협의 등
- '14. 8월초 선릉버스 100여대 목포신항만 선적 물동량 확보
- 목포항 기항에 따른 현안사항 협의
- 목포신항만(주) ① 보세구역 확보필요 ② 직원 10여명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장소 ③ 항만사용관련 수수료 인하 등 협조 요청
- 태창항무국 방문 목포~중국(태창)간 국제카페리 항로개설에 따른 접안선석, CIQ 등 활용가능 여부 협의
- 상해사무소 방문 목포~중국(태창)간 국제카페리 항로개설 관련 동향파악
- 우선 화물량 확보가 선행조건이며, 건설한 선박회사를 발굴 운항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남도와 상호협조 필요

□ 향후대책

- 목포항 기항 선릉버스 협조사항 및 '14. 8월초 선박입항에 따른 부대행사 지원
- 선릉버스 요청한 보세구역지정 등 협의사항은 우리시에서 측면지원하고 목포항 기항에 따른 MOU협약체결 등 행정적 지원
- 목포~태창간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태창시와 서신 및 서한문 등 지속적인 상호 우호교류 추진

중국 상해·태창시 포트세일 방문 결과보고

목포항 대중국(상해/태창) 포트프로모션 추진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및 신규 화물 유치를 위해 목포시와 신항만이 합동으로 목포항 홍보를 추진하기 위함.

I

방문개요

- 기 간 : '14. 07. 16(수) ~ 07. 19(토) 《3박 4일》
 - 방문지역 : 중국 상해시, 태창시
 - 상 해 : 선룽버스회사, China Shipping 선사, 전남도 상해사무소
 - 태 창 : 태창시항무국, 태창항만
 - 방 문 단 : 4명(목포시 1, 목포신항만 3)
 - 방문목적
 - 상해선룽버스 방문 공장견학 및 선룽버스 목포항 기항에 따른 협의
 - 태창항무국 방문 목포신항 물동량 유치방안 협의
 - 중국 China Shipping 방문 컨테이너 선사 정보교환 등
 - 목포~태창간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에 따른 동향파악 및 상해주변 관광인프라 여건파악 등 전남도 상해사무소 방문
 - 전체일정
 - 7. 16(수) : 무안공항(12:10) → 상해푸동공항(14:00)
 - 7. 16(수) : 상해선룽버스 공장 견학 및 간담회(15:00~17:30)
 - 7. 17(목) : 태창시항국(10:00) → 태창항만 견학(14:00)
 - 7. 18(금) : China Shipping 방문(11:00) → 전라남도 상해사무소 방문(16:00)
 - 7. 19(토) : 상해푸동공항(08:55) → 무안공항(11:20)
- ※ 중국 상해 한국시간 -1시간 시차

II

주요활동사항 및 성과

1 상해선룡버스회사 방문

- 방문일시 : 2014. 7. 16(수) 15:00 ~ 17:30
- 참 석 : 18명 (방문단 4, 상해선룡버스 8, 한국선룡버스 4)
- 주요내용 : 회사소개, 시장님친서 전달, 간담회, 공장견학

① 상해선룡버스 : 진세성 해외판매부장

- 먼저 선룡버스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 선룡버스회사는 한국시장 수출을 계기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개선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.
- 또한 목포시장님께서 친히 서신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, 앞으로 목포시와 좋은 인연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람
- 선룡버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, 싱가포르, 사우디, 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진행중에 있으며 기술 및 제품, 생산성 등 최고의 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전망이 기대됨.
- 선룡버스현황 PPT 보고 청취, 버스생산 공정 및 조립과정 견학

상해선룡버스유한공사(上海申龍旅客車有限公司)

- ▶ 설립일자 : 2001. 4. 13 (대표자 진서향), 종업원수 : 1,200여명
- ▶ 공장규모 : 20만㎡(약 6만평), 자본금 : 3억 인민폐(한화 510억원)
- ▶ 연간 생산능력 : 10,000대(중·대형버스), 매출액 : 10억 인민폐(한화 1,700억원)
- ▶ 주요사업 : 고속버스, 관광버스, 시내버스 생산 판매, 자동차 연구개발
- ▶ 국내·외 수출 : 태국, 싱가포르, 러시아, 남미, 한국(2012년 한국시장 진출)

② 한국선룡버스 : 신희주 대표(중국 선룡버스 부사장 겸임)

- 상해선룡버스는 2001년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15년된 건실한 기업이며 짧은 시간내 중국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한 모범기업임.

- 선릉버스는 2013년 4,200대 버스판매(1/3 해외수출) 했으며 한국 시장은 2013년 선릉버스코리아를 통해 118대 수출판매 하여 향후 주요수출시장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 확대 예정임.
- 2014년 현재 160대 한국수출 대기 중이며 연말까지 약 600대 수출판매 계획(선릉버스코리아 사업계획)임.
- 선릉버스코리아는 현재 평택항으로 선적하여 경주 장치장에서 제조립 후 수도권 및 관광지에 선릉버스를 판매하고 있으나 목포 신항으로 선적지를 옮겨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전초기지를 만들려는 계획임. (다음달 8월초 100대 분량 선릉버스를 목포항으로 하역협의 완료 된 상태 - 선박회사 유코)
- 한국 버스시장(현대차, 대우차 등)은 버스 생산하는데 오랜시간(6~12개월)이 소요되어 경쟁력이 점점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계적으로
 - 1차 : 한국수입 버스 목포항 선적(현재 평택항) 완제품 판매
 - 2차 : 230여종의 버스 부품 및 반제품 조립공장 설립
 - 3차 : 향후 중국자본 유치 전기차버스 생산 공장 목포 설립 계획

③ 선릉버스코리아 목포신항만 이용에 대한 협조사항

▸ 보세구역내 장치장 필요

- 120대 규모 장치장(약 3,000평)이 필요하며 버스판매 회전율은 3개월 정도로 판매확정차량에 대하여 통관하여 반출하려고 함.

▸ 제조립을 위한 부품창고 및 작업장(당사의 CFS) : 90%완성차에 시트장착 등의 제조립

▸ 선릉버스코리아 상주직원 사무실(직원 8~10명)

▸ 물량확대에 따른 추가부지 필요시 신항만 배후부지 이용 및 보안(펜스 설치 등)

▸ 선릉버스코리아 입장에서는 목포신항으로 물류기지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

발생 및 기존 경주장치장 폐쇄로 기존투자비가 손실됨에 따른 이용료 할인 및 목포시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

【선릉버스 관계자 면담】



【시장님 친서 전달】



【선릉버스 공장 견학】



【선릉버스 공장 견학】



② 태창시항무국 관계자 면담

- 방문일시 : 2014. 7. 17(목) 10:30 ~ 12:00
- 참 석 : 5명 (방문단 3, 태창시항무국 관계자 2)
- 면 담 자 : 태창시항무국 손송국장 면담
- 주요내용 : 목포신항 물동량 유치방안 협의
 - 태창항 전체 72개 선석 보유(컨테이너선석 12개 - 컨테이너전용 10개/다목적 2개) 해안선 전체가 3.8Km이며 Draft 12.5m로 50,000톤급 선박 접안가능 (72개 선석 중 36개선 선석)

- 항만하역 운영사는 민간기업으로 90개회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기업에는 운영사 개방안함.
- 작년 컨테이너 330만 TEU 처리했으며 금년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됨. (전체적인 항만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)
- 태창항무국 손송국장의 의견으로 최근 SITC의 태창-상해-일본 (선박4대 투입/화물은 Out Bound 85%-In Bound 30% 선적) 서비스 개시에 따른 한국(CK LINE-천경해운)선사 개방하는 것은 항권을 가지고 두 나라간 협상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진행사항을 더 지켜봐야 하며 실제로 너무 많은 사들의 태창항 개방은 경쟁 심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경쟁심화 되지 않도록 운영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.

※ SITC(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) : 표준 국제 무역 분류

- 카페리 개설관련 실제업무는 태창시 보다는 태창항무국과 직접 처리해야할 사항이고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함(중국 공상품 주요 공급지역인 이우오시와 근접하고 있고 태창주변 관광지<황산, 소주 등>가 많은 것도 장점임)에 따라 먼저 화물 조사 등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반면에, 카페리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창기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사의 투입여부도 중요한 사항임. (현재 태창-시모노세키카페리 운항도 5년정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는 화물중심으로 주2항차까지 가능해짐)
- 향후 컨테이너 항로/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전 달 및 지속 적인 정보교류 등의 협조를 요청함.
- 목포~태창간 국제카페리 운항에 따른 국제여객선터미널, 세관, CIQ 등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, 만일 이 항로가 개통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

- 목포~중국(태창)간 국제카페리 항로개설에 따른 접안선석, CIQ 등 활용가능 여부 협의

⇒ 중국 태창항무국에서 적극 협조하겠으며, 현재 운항중인 시모노세키↔태창간 항로가 여객이 부족하여 운항에 어려움이 있으니 목포↔태창간 카페리 취항을 사전 화물 및 여객 등을 잘 판단해 운항검토 의견제시

【태창항무국 관계자 면담】



【태창항 전경】



③ 전라남도 상해사무소 방문

- 방문일시 : 2014. 7. 18(금) 16:00 ~ 17:00
- 참 석 : 5명 (방문단 3, 상해사무소 2)
- 면 담 자 : 전남도 상해사무소 신경일소장 면담
- 주요내용 : 카페리 항로 개설 동향 및 상해주변 관광여건 파악
 - 목포~중국(태창)간 국제카페리 항로개설에 따른 동향파악 및 협조요청
- ⇒ 목포↔태창간 카페리 취항을 위하여 우선 화물량 확보가 가장 선행조건이며, 견실한 선박회사가 운항하여 운항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호협조 필요
- 카페리 항로개설에 따른 한·중해운회담 의제상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밟고 사업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

- 목포~태창간 카페리 취항 대비 중국 상해 주변 관광여건 문의
⇒ 중국 상해 및 인근 강소성, 절강성 등은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관광객이 많으며, 목포시에서 목포권(무안, 영암, 해남) 인근과 연계한 습지, 농가체험, 해양레저 등 관광상품을 개발 유치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
- 중국은 관계를 중시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목포시는 순환 보직으로 인해 빈번한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카페리 개설을 위한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- 전라남도 상해사무소에서 현지여행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카페리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카페리 개설을 위해 목포시는 우선적으로 우호관계개설에 앞서 카페리 화물조사 및 정확한 사업방향 등을 확립한 다음 2~3년 장기적인 업무추진시스템을 갖추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.

III

향후 대책

1] 선릉버스 목포항 기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

○ 선릉버스 요청사항 지원

- 신항만 보세구역지정 부지 임대 협의건
 - 보세구역 협의는 목포세관, 신항만(주)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우 리시에서 측면지원
 - 신항만 보세구역 1평당 7,000원의 임대료가 소요됨에 따라 양 측이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
- 한국선릉버스 직원 10여명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제공
 - 신항만(주)에서 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상호 협약체결 해결

- 항만사용관련 수수료 인하 등 협조 요청
 - 목포신항만(주)와 선릉버스 회사측간 협의할 사안임
- '14. 8월초 선릉버스 목포항 기항에 따른 부대행사 지원
 - 목포항 기항에 따른 목포시, 선릉코리아(주), 목포신항만(주) MOU협약 체결
 - 목포기항 일정이 확정되면 MOU 협약 체결 및 대대적인 환영 행사 지원
 - 기타 보도자료 작성 언론홍보 병행 실시
- 상해선릉버스 목포항 기항에 따른 행·재정적 지원 방안 및 목포신항만(주) 등 관계기관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
② 목포~태창간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 관련

- 서신 및 서한문 교환 등 지속적인 우호교류 추진
- 목포~태창간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태창시와 상호 우호 교류 협약체결 및 상호방문 활성화
- 카페리 항로 운항 참여 선사 발굴 어려움
 - 전남도, (주)목포신항만 등 국내·외 Port-Sale을 통한 목포항 홍보 및 사업 참여자 발굴 및 여객 및 물동량 확보에 총력